

2019년 1월 23일

KIWOOM DAILY

|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서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하락 미국, 중국이 제시한 미-중 무역 예비 협상 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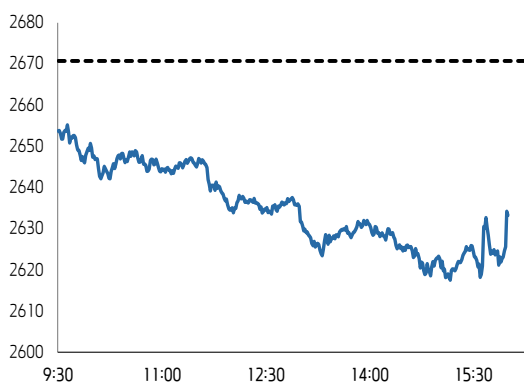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하락 요인

미 증시는 미-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하락. 특히 상공회의소가 중국의 '제조 2025'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무역대표부에 제공했다는 소식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중국이 제시 했던 미-중 예비협상을 미국이 거부 했다는 소식으로 낙폭 확대(다우 -1.22%, 나스닥 -1.91%, S&P500 -1.42%, 러셀 2000 -1.69%)

지난해 말 저점 이후 미 3 대 지수는 미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및 미-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13~15% 상승. 특히 12 개월 Fwd PER 이 10 년 평균(14.6 배)를 하회한 14 배에 그치는 등 양호한 밸류에이션도 반등 요인 중 하나. 그러나 섯다운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GDP 성장을 하향 조정 우려(백악관 발표 매주 0.13%p 하향) 및 IMF 의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(3.7%→3.5%)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재 부각. WB 를 비롯해 많은 기관이 이미 성장을 하향 조정을 발표 했었기에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,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빌미로는 충분. 지난 18 일 기준 S&P500 12 개월 Fwd PER 이 10 년 평균을 상회한 15.3 배까지 올라왔기 때문

한편, 미-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또한 부담. 전일 미국이 캐나다에 화웨이 CFO 에 대한 1 월 30 일까지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.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한다고 발표하며 화웨이를 둘러싼 미-중 마찰이 격화. 더불어, 미 상공회의소가 중국의 '제조 2025'와 관련된 비판 보고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 했다는 소식도 불확실성 자극. 미 상공회의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, 보조금 지급 등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. 지난 1 월 7~9 일 미-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, 여전히 '지적재산권' 관련 이슈는 진행중 이었던 점을 감안 이번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향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부각. 특히, 1/30~31 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예비 협상을 가지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'강제적인 기술 이전'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며 거부하자 미 증시는 하락폭 확대.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	지수동락률(%)	Close	D-1	지수	지수동락률(%)	Close	D-1
KOSPI		2,117.77	-0.32	홍콩항셱		27,005.45	-0.70
KOSDAQ		694.55	-0.15	영국		6,901.39	-0.99
DOW		24,404.48	-1.22	독일		11,090.11	-0.41
NASDAQ		7,020.36	-1.91	프랑스		4,847.53	-0.42
S&P 500		2,632.97	-1.41	스페인		9,037.50	-0.18
상하이종합		2,579.70	-1.18	그리스		630.17	+1.76
일본		20,622.91	-0.47	이탈리아		19,437.27	-1.03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산업재 업종 하락 주도

주택을 비롯해 자동차등 산업재 수리 업체인 스탠리 블랙앤 데커(-15.49%)는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한 여파로 급락했다. 더불어 미-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보잉(-1.87%), 캐터필라(-3.19%), 3M(-1.83%) 등 여타 산업재도 동반 하락 했다. 마이크론(-5.29%)은 미-중 무역협상에 불확실성과 일부 임원에 대한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 조사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. 한편,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(-2.82%), 인텔(-1.87%), 램리서치(-5.19%), ASML(-1.97%)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은 실적 부진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.

아마존(-3.77%), 넷플릭스(-4.11%)는 스트리밍 사업을 두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. 엑손모빌(-1.51%), 코노코필립스(-3.17%), EOG리소스(-4.15%) 등은 국제유가가 미-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급락하자 약세를 보였다. 담배회사인 알트리아(-6.91%)는 투자의견 하향으로 급락했다. 반면, 이베이(+6.13%)는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베이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. UPS(+1.06%)는 CEO가 아마존은 훌륭한 고객이라고 발표하며 아마존과의 협력을 언급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. 맥도날드(+1.10%), 스타벅스(+1.07%) 등은 방어주 역할에 힘입어 상승했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	-4.18%	대형 가치주 ETF	-1.34%
에너지섹터 ETF	-3.25%	중형 가치주 ETF	-1.30%
소매업체 ETF	-2.45%	소형 가치주 ETF	-1.41%
금융섹터 ETF	-1.15%	배당주 ETF	-1.32%
기술섹터 ETF	-1.68%	변동성 ETF	+9.03%
소셜 미디어업체 ETF	-3.55%	대형 성장주 ETF	-1.59%
인터넷업체 ETF	-2.14%	중형 성장주 ETF	-1.57%
리츠업체 ETF	-0.18%	소형 성장주 ETF	-1.93%
주택건설업체 ETF	-1.73%	신흥국 고배당 ETF	-1.39%
바이오섹터 ETF	-1.58%	신흥국 저변동성 ETF	-1.24%
헬스케어 ETF	-0.69%	하이일드 ETF	-0.51%
곡물 ETF	-0.90%	물가연동채 ETF	+0.06%
반도체 ETF	-2.90%	Long/short ETF	+1.14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61.15	-2.20%	+0.81%	+9.94%
소재	330.42	-1.37%	+1.69%	+7.42%
산업재	577.93	-2.07%	+1.19%	+8.18%
경기소비재	832.01	-1.79%	+1.13%	+9.78%
필수소비재	532.94	-1.01%	+1.00%	+2.16%
헬스케어	1,035.35	-0.72%	+2.97%	+6.54%
금융	426.95	-1.09%	+4.22%	+10.33%
IT	1,126.34	-1.76%	+1.90%	+5.10%
커뮤니케이션	146.83	-1.96%	+0.25%	+6.54%
유틸리티	270.15	+0.14%	+2.24%	-1.87%
부동산	202.27	-0.16%	+2.25%	+3.38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매물 출회 전망

MSCI 한국 지수 ETF 는 2.15% MSCI 신흥 지수 ETF 도 1.68% 하락 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1,022 계약) 여파로 1,150pt 하락한 271.95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30.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 증시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. 특히 1 월 30~31 일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간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, 중국이 제시한 이번 주말 예비 협상을 미국이 거부 하는 등 미-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부담이 되었다. 연초 이후 KOSPI 의 상승요인 중 하나가 미-중 무역협상 기대감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오늘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 중국 증시가 전일 화웨이 사태로 1.2% 하락했으며, 오늘도 무역분쟁 우려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부정적이다. 한편, 주 중반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 미국의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.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85% 하락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. 다만, KOSPI 12 개월 Fwd PBR 이 0.83 배에 불과해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주택지표 둔화

12 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(533 만건)이나 예상치(522.5 만건)을 하회한 499 만 건에 그쳤다. 전월 대비로는 6.4%, 전년 대비로는 10.3%나 급감했다.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. 한편, 기존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2.9% 상승한 25 만 3,600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은 이어졌다고 발표했다.

1 월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는 전월(-17.5)이나 예상치(-18.8) 보다 개선된 -15.0 을 기록했다. 다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해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되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

국제유가는 미-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. 특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도 부담이었다. 한편, EIA 는 시추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2 월 산유량이 전월 대비 하루 6 만 2 천 배럴 증가한 817.9 만 배럴로 전망하는 등 미국 산유량 증가 우려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.

달러화는 엔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으나, 신흥국 환율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다. 엔화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부각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. 파운드화는 노동당이 제 2 국민투표를 공식화 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. 이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'노딜 브렉시트'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.

국채금리는 주택지표 부진과 미-중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다. 더불어 나스닥이 2% 가까이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 부진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.

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.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.75% 철근도 0.65% 하락 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53.01	-1.91	+4.35	Dollar Index	96.334	-0.00	+0.31
브렌트유	61.50	-1.98	+1.42	EUR/USD	1.136	-0.04	-0.46
금	1,283.40	+0.06	-0.61	USD/JPY	109.39	-0.26	+0.65
은	15.325	-0.48	-2.30	GBP/USD	1.2955	+0.49	+0.73
알루미늄	1,883.00	+1.67	+2.06	USD/CHF	0.9975	+0.03	+0.98
전기동	5,935.00	-0.77	+0.25	AUD/USD	0.7118	-0.57	-1.15
아연	2,576.00	-0.46	+4.89	USD/CAD	1.3347	+0.40	+0.61
옥수수	379.00	-0.72	+0.13	USD/BRL	3.8049	+1.19	+2.25
밀	521.25	+0.68	+1.36	USD/CNH	6.8151	+0.20	+0.61
대두	909.25	-0.82	+0.64	USD/KRW	1130.50	+0.21	+0.87
커피	103.35	-1.52	+0.58	USD/KRW NDF1M	1130.60	-0.00	+0.82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2.741	-4.32	+2.98	스페인	1.332	-3.10	-5.50
한국	1.995	-3.50	+3.30	포르투갈	1.724	-2.40	+6.80
일본	0.003	-0.50	-1.00	그리스	4.111	-2.80	-14.10
독일	0.236	-1.90	+3.00	이탈리아	2.739	-1.80	-13.30